
주요국 예산안 - 프랑스

2018. 12.

연구책임자

박한준 센터장

강희우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정인 전문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2
2. 예산기조	7
3. 예산안 내용(PLF 2019)	8
가. 세입	8
나. 세출	10
4. 주요 재정정책	14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14
나. 재정건전화	17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18

프랑스

□ FY2019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출처

- 2019년 예산법안 (PLF 2019: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9) 및 부속서류
 - Dossier de presse-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9, chiffres clés du PLF 2019, Évaluation des voies et moyens,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등
- 2019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LFSS 2019: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 환율: 1유로 = 약 1,301.94원(2018년도 1월~11월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 2017년 경상GDP 2조 5,825억달러(우리나라의 약 1.7배 수준)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 2017년 기준 62.9%(우리나라는 80.8%)

□ 인구 : 약 6,712만명(2017년 기준)

□ 지난 10년간 실질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성장) 유로지역의 지속적 경기회복 및 글로벌 수요의 개선으로 프랑스 경제는 지속적 성장세를 이어가, 2018년과 2019년에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9년 1.9%를 기록할 전망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재정적자 3%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예산기조) 2019년 프랑스 예산안은 ① 자유로운 경제활동, ② 자국민 보호, ③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기조로 함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9년 재정수입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4.9%(149억유로) 감소한 2,914억유로로 전망
- (지출) 2019년 재정지출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1%(40억유로) 증가한 3,908억유로로 전망

□ 주요재정정책

- (자유로운 경제 활동) 경기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실업자를 모두 지원하여 구매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자국민 보호) 취약 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돕도록 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주택 개혁을 지속하고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18년 4월 11일	2018-2022 안정화 프로그램 및 국가개혁 프로그램 발표
2018년 5월 23일	FY2017 결산보고서 발표
2018년 6월 5일	FY2017 사회보장예산 결산보고서 발표
2018년 6월 18일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발표
2018년 8월 2일	2018년 상반기 예산집행결과 발표
2018년 9월 24일	FY2019 예산법안 발표
2018년 9월 25일	FY2019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발표
2018년 11월 7일	FY2018 수정예산법안 발표
2018년 11월 26일	FY2018 수정예산법안 의회승인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유로지역의 지속적 경기회복 및 글로벌 수요의 개선으로 프랑스 경제는 지속적 성장세를 이어가, 2018년과 2019년에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가계소비) 세금 경감 조치로 인해 가계구매력이 높아져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2018년 1.6%로 반등되었고, 2019년에 속도가 더 빨라져 1.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기업투자) 경기전망 및 금융 상태의 개선으로 2018년 크게 증가한 기업투자는 2019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8년보다는 조금 낮아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무역) 꾸준한 글로벌 수요로 인해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고, 국내수요 회복세에 따라 수입도 3.1% 증가할 전망
 - (고용) 경기개선과 노동시장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이 계속해서 이어져, 2019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전망
 - (물가) 2019년 에너지가격 상승이 물가의 상승압박으로 작용하지만 그 정도는 2018년에 비해 약해져 1.4%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표 1> 거시경제 전망

(단위: %)

	2018년 4월 안정화프로그램		2019년 예산안	
	2018	2019	2018	2019
GDP성장률	2.0	1.9	1.7	1.7
수입	4.1	4.1	2.5	3.1
가계소비지출	1.6	1.9	1.6	1.7
기업투자 ¹⁾	4.4	3.5	4.6	3.0
총고정자본형성	3.9	3.3	3.3	2.1
수출	4.9	4.6	3.7	3.6
물가상승률	1.4	1.2	1.8	1.4

주: 1) 건설투자 제외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나.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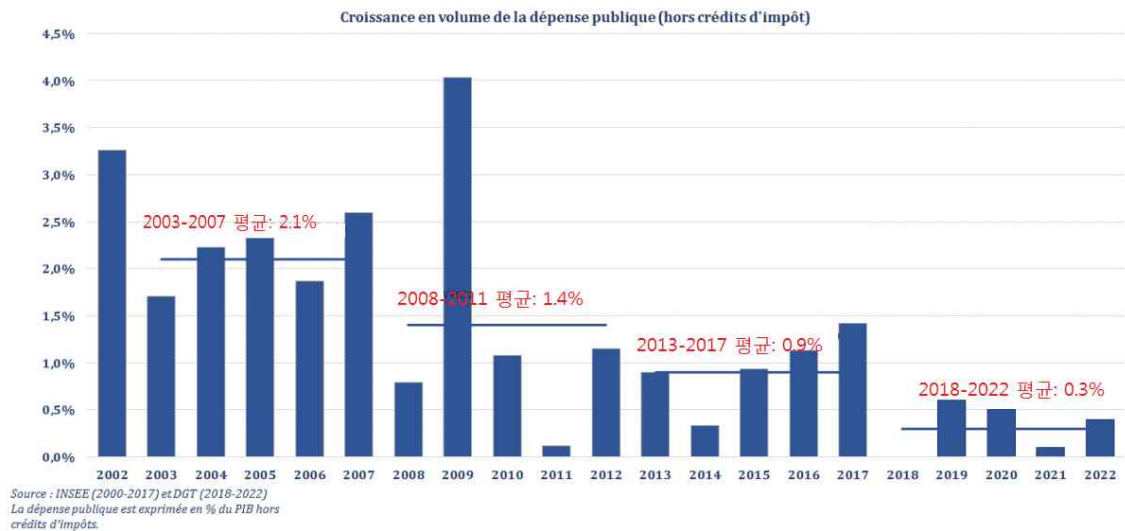
1) 세입 및 세출전망

□ (지출) 2018년 공공지출 증가율은 0%를 기록하였고, 2019년에도 0.6%로 완만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1.7%)보다 훨씬 낮은 수준

- 재정지출증가율은 2018-2022년 기간 동안 평균 0.3% 정도로 낮게 유지할 것이며, 이로 인해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2017년 45.3%에서 2019년 44.2%까지 하락할 전망
- 정부의 지출통제 노력에 따라, 2019년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의 실질증가율은 0.8%이며, 이후에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전망

* 조정가능 지출은 일반 예산의 세출, 조정가능 특별회계의 세출 등 정부가 직접 통제 가능한 지출을 의미

[그림 1] 재정지출증가율 추이 및 전망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 2019

□ (수입) 2019년 재정수입은 2,914억유로로 2018년 예산법 대비 84억유로, 2018년 집행 전망 대비 149억유로 감소할 전망

○ 세금부담을 줄이고 가계구매력을 높여 경제에 선순환이 작동하도록 하려는 마크롱 정부의 의지가 2019년에도 이어져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18년 45.0%에서 44.2%로 감소할 전망

- 조세수입은 2,789억유로로 2018년 본예산법 대비 77억유로, 2018년 수정예산 대비 140억유로 감소

- 세외수입은 125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표 2> FY2019 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17 결산	2018		2019 예산법안
		본예산	수정	
재정지출(Dépenses BG + PSR)	382.8	386.5	386.8	390.8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22.6	326.3	325.9	328.8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0.2	60.3	60.9	62.0
지방자치단체 이전(Prélèvements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3.8	40.3	40.3	40.5
EU 부담금(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16.4	19.9	20.6	21.5
재정수입(Recettes nettes)	309.4	299.8	306.3	291.4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95.6	286.6	292.9	278.9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3.8	13.2	13.4	12.5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5.5	1.0	-0.8	0.6
총재정수지(Solde General)	-67.7	-85.7	-81.3	-98.7

자료: PLF 2019

<표 3> 2017-2022년 재정지표 전망

(단위: GDP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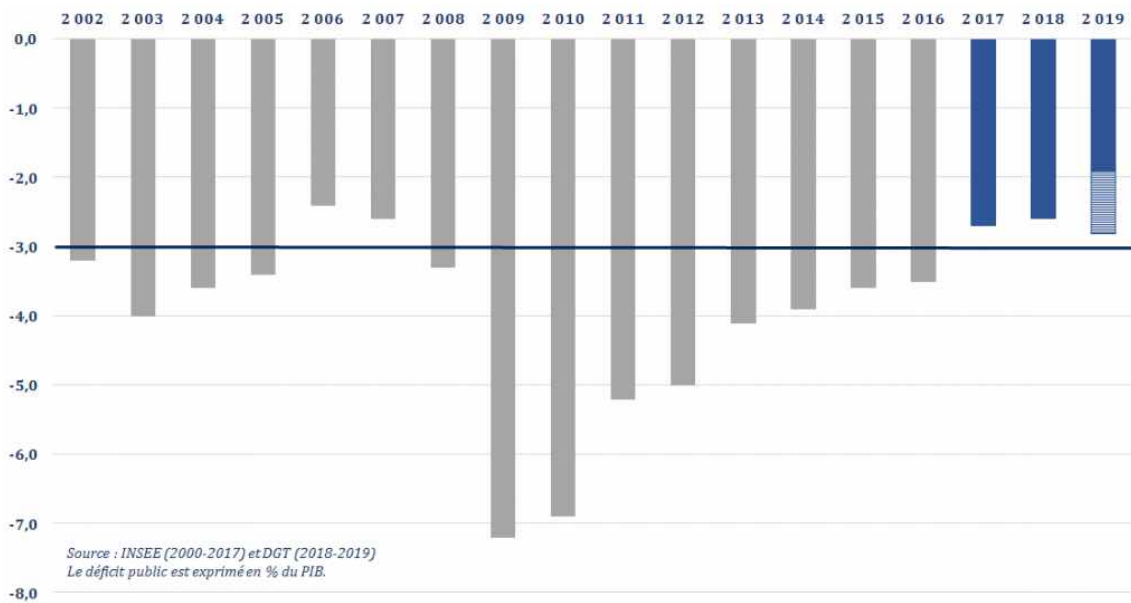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조세부담률	45.3	45.0	44.2	44.6	44.6	44.5
재정지출	55.1	54.6	54.0	53.3	52.5	51.8
재정지출 증가율 (%)	1.4	0.0	0.6	0.5	0.1	0.4

자료: PLF 2019

2) 재정수지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9년 1.9%¹⁾를 기록할 전망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재정적자 3%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의 점진적 개선으로 2009년에 시작된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²⁾가 2018년 6월 종료됨
 - 재정수지 적자는 감소세를 계속 이어가 2022년에는 GDP 대비 0.3%까지 낮아져 재정수지 균형에 근접할 전망

[그림 2] GDP 대비 재정적자 추이



주: 2019년 재정적자는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를 일반감면으로 전환하는 특별조치를 제외한 경우 1.9%, 포함한 경우 2.8% 전망

출처: PLF 2019

- 1)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완하로 전환되는 일시적 효과를 제외한 수치
- 2) 초과적자시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는 GDP대비 재정적자가 3% 초과하거나 채무가 60%를 초과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EU의 조치로, 프랑스는 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22일 초과적자시정절차의 종료가 결정됨

3) 국가채무 전망

□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9년에 다소 안정화되어 2018년보다 0.1%p 낮은 98.6%를 기록할 전망

-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³⁾ 추가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자 감축 노력 및 경제성장에 따라 2019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이후 5년 동안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여 국가채무는 하향 추세를 이어가 2022년에 9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표 4> 2017-2022년 재정수지 및 채무비율 전망

(단위: GDP대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특별조치 제외 재정수지	-2.6	-2.4	-1.9	-	-	-
구조적 재정수지	-2.3	-2.2	-2.0	-	-	-
총재정수지	-2.7	-2.6	-2.8	-1.4	-0.7	-0.3
국가채무	98.5	98.7	98.6	97.5	95.3	92.7

자료: PLF 2019

3)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 Le credit d'imot pour la competitivite et l'emploi)는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완화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는 공제분 총당으로 인해 2019년 일시적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가 0.8%p 악화됨. CICE는 2013년 1월 처음 도입되어, 지급한 총임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6%(2018년 기준)을 적용하였음.

<참고 1> 2018년 수정예산법안(PLFR: Projet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18)

□ FY2018 수정예산법안(PLFR: Projet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18) 발표 (2018.11.7.)¹⁾ 및 채택(2018.11.26.)²⁾³⁾

- (경제전망)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1.7%로 2018년 예산법 및 2019년 예산법안의 전망치와 동일
- (재정전망) 2018년 수정예산법안의 재정적자는 본예산 대비 57억유로 감소한 800억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FY2018 수정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2018년 예산법안(PLF)	2018년 수정예산법안(PLFR)
재정지출	386.5	387.1
재정수입	299.8	306.9
조세수입	286.6	293.3
세외수입	13.2	13.6
특별회계	1.0	0.2
총재정수지	-85.7	-80.0

출처: PLFR 2018

FY2018 수정예산법안- 총지출 기준

(단위: 십억유로)

	2018년 예산법안 (PLF)	2018년 수정예산법안 (PLFR)	PLFR-PLF
총지출	425.4	425.8	+0.3
조정가능 지출	257.9	257.3	-0.6
부처별 지출	241.3	240.9	-0.4
목적세로 충당된 지출한도	9.1	9.1	-0.0
조정가능 특별회계 및 부속예산	13.3	13.1	-0.2
중앙정부 예산 재조정	-5.8	-5.8	-0.0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	47.0	46.8	-0.2
특별할당회계의 연금지출	56.5	56.7	+0.1
특별할당회계의 기타지출	1.8	1.6	-0.2
유럽연합(EU) 부담금	19.9	20.7	+0.7
부채부담	41.2	41.7	+0.5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s d'avenir)	1.1	1.1	-

출처: PLFR 2018

- 1) 프랑스 예산국. 2018.11.7.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9/presentation-en-conseil-ministres-projet-loi-finances-rectificative-2018#W-jK1vkS-Uk>
- 2) 프랑스 예산국. 2018.11.28.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8/adoption-en-nouvelle-lecture-projet-loi-finances-rectificative-2018-assemblee-nationale#.XAXeBPkS-Uk>
- 3) 5)2018년 수정예산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년 11월 제1호 재정동향 참고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2018%EB%85%84-11%EC%9B%94-%EC%A0%9C1%ED%98%B8-%EC%9E%AC%EC%A0%95%EB%8F%99%ED%96%A5-/525641

2. 예산기조

- 2019년 프랑스 예산안은 ① 자유로운 경제활동, ② 자국민 보호, ③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기조로 함
 - (자유로운 경제 활동) 경기 개선 상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실업자를 모두 지원하여 구매력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초과근무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금이 면제되고 직업수당을 인상하는 등, 근로자 구매력 상승에 초점을 맞춤
 - (자국민 보호) 빈곤 개선 정책에 투자하고, 국방 및 정의 부문 예산을 확대 편성함
 - 사회보장 지출 증가율을 2019년과 2020년에 0.3%로 제한하면서, 사회보장재원을 재할당하여 취약 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돕도록 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주택 개혁을 지속하고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
- 2017년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하를 달성한 이후, 재정수지 개선 흐름을 지속하기 위하여 공공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함
 - 2018-2022년 동안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을 0.3%로 유지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

3. 예산안 내용(PLF 2019)

- 2019년 예산법안(PLF 2019: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8)은 2018년 9월 24일에 발표되고, 12월 20일 의회에서 채택됨⁴⁾

가. 세입

- 2019년 재정수입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4.9%(149억유로) 감소한 2,914억유로로 전망
 - 2019년 조세수입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4.8%(140억유로) 감소한 2,789억유로로 전망
 - (소득세) 새로운 세금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세'수 지연으로 2018년 대비 26억유로 감소할 전망
 - (법인세)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의 전환에 따라 법인세가 58억유로 증가할 전망
 - (에너지제품소비세) 에너지제품소비세의 인상 및 일부 디젤 사용자에게 대한 유류세인하 폐지로 37억유로 증가할 전망*
 - * 다만, 세금 인상 중단을 요구하는 노란조끼 운동(le Mouvement des Gilets Jaunes)⁵⁾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2월 4일 시위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유류세 인상을 반 년 동안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며⁶⁾, 이에 따라 세수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사회보장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266억유로 감소할 전망

4) 프랑스 예산국, Le PLF 2019, définitivement adopté, 2018.12.20.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8/plf-2019-definitivement-adopte#.XCLV5_kS-Uk

5) 노란조끼 운동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유류세가 점진적으로 인상돼왔고, 지난 1년 동안 경유가격이 23%, 휘발유가격이 15% 증가한 데 이어 유류세 추가 인상계획까지 발표함에 따라 발발한 시위

6) 프랑스 정부, Le Premier ministre annonce un moratoire sur plusieurs mesures fiscales, 2018.12.4.

<https://www.gouvernement.fr/le-premier-ministre-annonce-un-moratoire-sur-plusieurs-mesures-fiscales>

- 2019년 세외수입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6.7%(9억유로) 감소한 125억유로로 전망
- 2019년 예산법안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9년의 세수 감소 효과는 248억유로로 전망됨
 -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가계부문은 60억유로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어, 2018년의 20억유로보다 크게 나타남
 - 주택세 80% 삭감의 지속의 효과로 38억유로, 사회보장일반기여금 조정의 효과로 41억유로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됨
 - 세부담 완화는 에너지세 인상으로 인해 19억유로 증가를 상쇄함
 -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의 전환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약 200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적자는 2019년에 국가가 보전하게 됨

<표 5> FY2019 세입전망

(단위: 십억유로)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8 수정예산	2019 예산법안
I. 재정수입	309.4	299.8	306.3	291.4
II. 조세수입	295.6	286.6	292.9	278.9
소득세	73.0	72.5	73.1	70.5
법인세	35.7	25.9	25.7	31.5
에너지제품소비세	11.1	13.6	13.3	17.0
부가가치세	152.4	154.6	157.0	130.3
기타 세입	23.4	20.1	23.8	29.6
III. 세외수입	13.8	13.2	13.4	12.5

자료: PLF 2019

<표 6> 2019년 예산법안 주요 세제개편안

(단위: 십억유로)

주요내용	2018년 세수효과	2019년 세수효과
가계부문	-1.8	-6.0
가구의 80%에 대해 주택세 삭감	-3.2	-3.8
초과 근로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 면제	-	-0.6
자본소득에 대한 단일세(PFU: prélèvement forfaitaire unique) 시행	-1.6	-0.3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일반기여금(CSG) 인하	-	-0.3
사회보장일반기여금(CSG) 변동	4.4	-4.1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존 세액공제 제도(CITE)의 연장	-	0.8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l'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 IFI) 신설	-3.2	-
가구의 근로자 고용시 세액공제 확대	-1.0	-
학생 사회보장부담금 면제	-0.2	-
담배세 인상	0.6	0.4
에너지세 인상	2.4	1.9
기업부문	-8.4	-18.8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의 전환	-	-20.4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3.7	-0.5
법인세율 33%에서 25%로 인하	-1.2	-2.4
일시적인 법인세 다섯 번째 과표구간 설정		1.5
50인 이하 기업에 대해 사회보장세 폐지		-0.5
법인세 추가과세	-5.1	0.2
에너지세 인상	1.3	1.0
일부 디젤 사용자들에 대한 유류세인하 폐지		1.0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예산할당	0.3	1.3
총합계	-10.2	-24.8

자료: PLF 2019

나. 세출

- 2019년 재정지출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1%(40억유로) 증가한 3,908억유로로 전망
 - 마크롱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확인하는 이번 예산안은 주권을 강조하여 국방(17억유로), 치안(3억유로), 정의(3억유로), 그리고 이민 및 통합정책(2억유로)의 미션지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미션지출이 13억유로 증가함
 - ‘공공개혁 프로그램 2022(programme Action publique 2022)’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공공정책 변화의 미션지출이 크게 증가함
- 2019년의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은 2018-2022 중장기예산법안(LPFP)의 전망보다 6억유로 증가한 2,601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영토통일(cohésion des territoires) 미션지출에서 개인주거지원의 수혜자 조정 개혁 지연에 따른 지출 증가, 이민자 관련 지출 증가에 따라 조정가능지출이 전망 대비 증가함
- 2019년 총정부지출(Dépenses totales de l’Etat)은 2018-2022 중장기예산법안(LPFP)의 전망보다 13억유로 낮은 4,313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연금지출 인상률을 2019년과 2020년에 0.3%로 제한하면서 총정부지출이 중장기 예산법안 전망 대비 하락함
 - 반면 유럽연합 부담금은 중장기예산법안 전망 대비 증가함

<표 7> 정부지출

(단위: 십억유로, 실질가치 기준)

구 분	2018년 예산법	중장기 예상법안 2019년 지출전망	2019년 예산법안
총 정부지출(Dépenses totales de l'Etat)	425.4	432.6	431.3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	257.9	259.5	260.1
예산지출(Crédits budgétaires)	241.3	242.6	243.3
목적세로 충당된 지출(Taxes et recettes affectées)	9.1	8.9	9.4
특별회계 및 부속예산(Budgets annexes et comptes spéciaux)	13.3	13.8	13.2
중앙정부 예산 재조정(Retraitements des flux internes au budget de l'Etat)	-5.8	-5.9	-5.8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Transferts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7.0	47.1	47.3
특별할당회계 연금지출(Dépenses du CAS Pensions)	56.5	57.8	57.3
특별할당회계 기타지출(Autres dépenses de comptes d'affectation spéciale)	1.8	2.0	2.0
유럽연합 부담금(Prélèvement sur recettes au profit de l'UE)	19.9	23.3	21.5
이자지출(Charge de la dette)	41.2	41.9	42.1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s d'avenir)	1.1	1.0	1.0

출처: PLF 2019

<표 8> 2019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백만유로)

31개 미션 (지불예산(credit de paiement, CP)) ¹⁾	2018 본예산 (A)	2019 예산법안 (B)	B-A (%)
공공정책변화(Action et transformation publiques)	20	310	1450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863	2,724	-4.86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2,147	2,241	4.38
농업·임업·수산업(Agricultur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3,184	2,612	-17.96
정부개발원조(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2,680	3,081	14.96
퇴역군인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2,461	2,302	-6.46
영토통일(Cohésion des territoires)	17,219	16,048	-6.80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521	536	2.88
예비비(Crédits non répartis)	124	203	63.71
문화(Culture)	2,724	2,724	0.00
국방(Défense)	34,201	35,889	4.94
국가정책방향(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1,381	1,229	-11.01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Ecologie, développement et mobilité durables)	10,387	10,594	1.99
경제(Economie)	1,624	1,706	5.05
정부채정관리·부채관리·국채발행 등(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²⁾	580	411	-29.14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	51,485	52,309	1.60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8,150	7,754	-4.86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1,381	1,694	22.66
정의(Justice)	6,978	7,291	4.49
언론(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555	581	4.68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2,018	2,439	20.86
의회·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992	991	-0.10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7,404	27,902	1.82
복지 및 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332	6,284	-0.76
지방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3,662	3,433	-6.25
보건의료(Santé)	1,376	1,424	3.49
치안(Sécurité)	13,318	13,541	1.67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9,444	20,928	7.63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959	999	4.17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5,173	12,233	-19.38
미션별 합계	241,342	242,414	0.44

주: 1) 투입승인(AE)은 투자될 수 있는 예산지출상한액이며, 지불예산(CP)은 투입승인의 한도 내에서 체결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지출명령이 될 수 있거나 지불될 수 있는 지출상한액을 의미(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2)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에 대한 부담금과 채무부담 제외

자료: PLF 2019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 2019년 프랑스 예산안은 취약 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구매력을 높여 경기 선순환이 작용하도록 함
 - (자유로운 경제활동: 모든 프랑스 국민에 대해 세부담을 낮춤) 세부담을 줄이고 구매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춤
 - 2019년 9월 1일부터 초과근무에 대한 근로자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면제하여,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구매력 상승이 기대됨
 - 전체 가구의 80%에 대한 주택세 삭감 지속
 - 직업수당(prime d'activité)⁷⁾을 2018년 9월 20유로 인상한 데 이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20유로씩 추가로 인상할 예정
 -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업활동에 대한 유인을 강화) 기업활동에 대한 비용 절감 등의 정책을 시행
 - 250명 미만 기업에 대해 이익분배형 사회보장기여금 폐지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PIC: plan d'investissement dans les compétences)에 25억유로 투자
 - 법인세가 31%로 인하되며 유럽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었고, 수익 50만유로 이하 기업에 대해선 28%의 법인세가 적용됨
 -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시행⁸⁾
 -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업 지원 정책을 폐지하거나 전환하고, 복잡한 세제지원 혜택을 간소화함
 - 비효율적인 세금 20개를 없애거나 통합함
 - 5개 조세지출도 없애거나 규모를 삭감함

7) 저소득 직장인들에게 생계 보조비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2016년 1월부터 시행됨.

8) <참고 2>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참고 바람.

- (자국민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방과 정의(justice) 관련 지출을 강화함
 -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미션과 ‘노동과 고용’의 미션지출에서 각각 1억 7,500만유로와 3,500만유로를 새로 투자하여 취약계층의 필수품 및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 빈곤 개선 정책에 4년 간 총 85억유로 투자⁹⁾
 - 빈곤지역 초등학교에 아침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점심 급식도 국비지원을 통해 가격을 낮춤
 - 노동자 및 구직자를 위한 보육원 확대 설치
 -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무료 직업훈련 개시
 - 국방예산은 2018년 18억유로 증가에 이어 2019년 17억유로 증가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교육·연구·에너지 전환 등의 투자를 확대함
 - 친환경적인 상품을 지원하고 환경오염 상품에 과세하는 등 환경세를 부과하여 에너지전환(ecology transition)을 가속화함
 - 에너지전환세액공제*와 무이자환경대출**이 2021년까지 연장됨
 - * 에너지효율을 위한 건물 개·보수 작업에 공사비용의 30%까지 세금 환급
 - ** 무이자환경융자금(L' écho-prêt à taux zéro)을 10만유로까지 지원
 - 교육은 현 정부가 우선순위로 두는 정책분야로, “학교 교육” 및 “연구와 고등교육”의 미션지출은 2019년에 각각 8억유로와 5억유로 증가함
 - 공영방송 개혁 및 시스템 개선에 2019년 3,500만유로 포함 5년 동안 총 1억 9,000만유로를 투자할 계획
 - ‘공공개혁 프로그램 2022(programme Action publique 2022)’의 지속으로 공공지출의 효율성 및 타당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

9) 2018년 9월 13일 마크롱 대통령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를 통합한 ‘활동보편소득(revenu universel d'activite)’을 2020년 도입, 빈곤지역에 급식 제공, 노동자 및 구직자를 위한 보육원 확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빈곤개선정책을 발표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18년 9월 2호 참고.

<참고 2>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 프랑스 기업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Le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발표(2018.6.18.)¹⁰⁾ 및 의회 승인(2018.10.9.)¹¹⁾
 -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공정하고 자유롭고 더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조치들을 담고 있음
 - 고용 규모 구분선을 11명, 50명, 250명으로 간소화¹⁾
 - 250 명 미만 기업의 이익 배당 및 50 명 미만 기업의 지분참여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세 폐지
 - 온라인 기업 설립 플랫폼 단일화를 통한 비용 절감
 - 파산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의 재기 절차 간소화
 - 기업양도세 감면 조건 간소화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강화
 - 반도체, 우주항공 드론,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로봇, 데이터 저장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포함해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의 규제

주: 1)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부 지원이 줄어들어, 추가 인력 채용을 꺼리는 문제가 있었음

10) 프랑스 재무부, 2018.6.18.

<https://www.economie.gouv.fr/plan-entreprises-pacte>

11) 프랑스 정부, 2018.10.9.

<https://www.gouvernement.fr/en/pacte-the-action-plan-for-business-growth-and-transformation>

나. 재정건전화

- 2018년과 2019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잠재성장률(1.25%)을 웃도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구조적 재정수지는 2017년에 -0.3%에서 0.1%로, 2018년에 -0.1%에서 0.1%로 개선될 전망
 - 2019년의 GDP 대비 명목 재정수지는 기존 전망보다 0.2%p 악화된 -2.8%로 전망되는데, 이는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의 전환에 대한 추가 지출로 인한 것이며, 이를 제외했을 때의 재정수지는 -1.9%
- 재정지출 증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2019년 예산안은 기존 전망과 비교하여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를 0.3%p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시적인 조치를 제외한 공공지출 증가율은 1.9%로 잠재GDP 증가율인 2.5%보다 낮게 나타남
 - 지출통제노력을 기울여, 모든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지출증가율을 0.3%로 제한하도록 함
 - 일반정부의 모든 하위 부문에서 지출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이자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 통제가 강화됨
 - 직업훈련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창설된 기구인 France Compétences의 재정 효과를 제외했을 시, 지출증가율은 0.4%
- 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0.6%로 제한되어 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중은 2018년 54.6%에서 2019년 54.0%로 감소함
 - 조정가능지출(dépenses pilotables) 증가율은 0.8%로 2018년의 0.6%에 이어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함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2019년 사회보장부문예산법안(PLFSS 2019: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9)은 2018년 9월 24일에 발표됨
- 공공지출을 줄이고 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이번 사회보장부문예산법안은 2018년 예산법안과 함께 제출된 2018-2022 중장기 예산법안(PLPFP)의 틀을 유지함
 - 18년 동안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 2024년까지 사회보장예산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9> 2019년 프랑스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5	2016	2017	2018(전망)	2019(전망)
의료보험(CNAM- Maladie)	-5.8	-4.8	-4.9	-0.9	-0.5
산재보험(CNAM-AT-MP)	0.7	0.8	1.1	0.8	1.1
법정연금기금(CNAV)	-0.3	0.9	1.8	0.8	0.7
가족지원금(CNAF)	-1.5	-1.0	-0.2	0.4	1.2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수지	-6.8	-4.1	-2.2	1.1	2.5
노령연대기금(FSV)	-3.9	-3.6	-2.9	-2.1	-1.8
총재정수지(RG+FSV)	-10.8	-7.8	-5.1	-1.0	0.7

출처: PLFSS 2019

-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건시스템 혁신 투자에 초점을 맞춤
 - 사회보장이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 아래, 초과근무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사회보험부담 완화가 구매력을 높여 경제에 선순환으로 작용하도록 함
 - 빈곤개선정책에 4년간 85억유로를 투자¹²⁾하는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하고, 모든 국민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 또한 높이도록 함
 - 프랑스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시스템 정비에

12) 2018년 9월 13일, 마크롱 대통령은 빈곤개선에 4년간 총 85억유로를 투자하여 빈곤지역의 아동을 지원하고 보육원을 확대 설치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 분석센터 재정동향 2018년 9월 2호 참고.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2018%EB%85%84-9%EC%9B%94-%EC%A0%9C2%ED%98%B8-%EC%9E%AC%EC%A0%95%EB%8F%99%ED%96%A5/525586

4년 간 총 34억유로를 투자¹³⁾

- 2019년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재정수지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흑자를 기록할 전망이고, 노령연대기금(FSV)을 포함한 총재정수지 또한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의료보험과 노령연대기금은 재정적자 수준이 완화될 전망이며, 가족지원금은 재정적자에서 재정흑자로 전환되고, 산재보험과 법정연금기금은 8억유로 흑자를 기록할 전망
 - 2019년 사회보장부문 총지출 증가율은 2.0%로, 2018년도의 2.3%보다 조금 낮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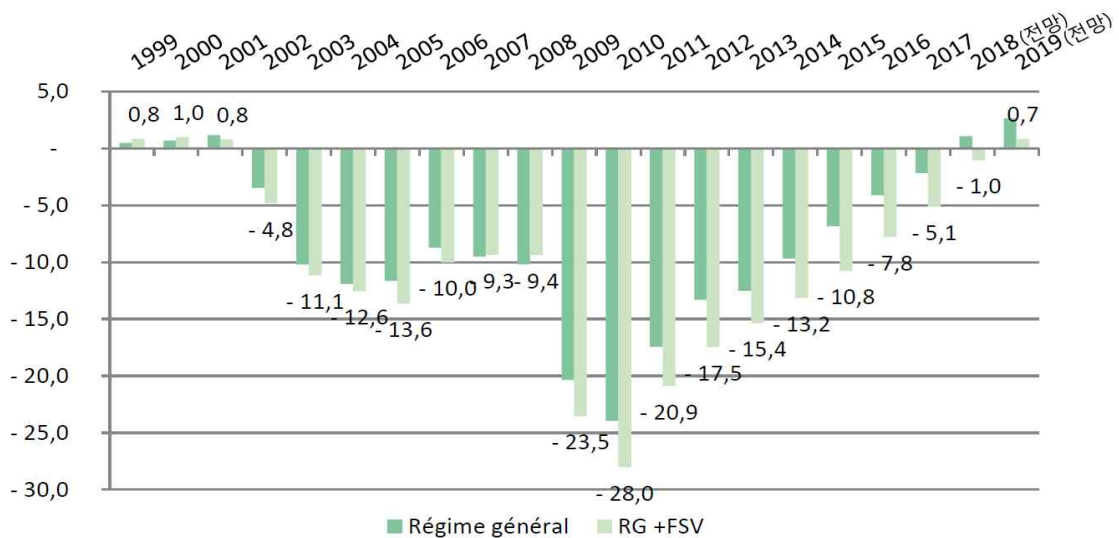
<표 10> 2019년 프랑스 사회보장부문 지출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18(전망)	2019(전망)
의료보험(CNAM- Maladie)	211.3	216.2
산재보험(CNAM-AT-MP)	12.0	12.2
법정연금기금(CNAV)	133.7	137.1
가족지원금(CNAF)	50.1	50.3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수지	394.1	402.7
노령연대기금(FSV)	18.9	18.4
사회보장부문 총지출(RG+FSV)	395.7	404.2

출처: PLFSS 2019

[그림 3]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지 추이 전망



13) 2018년 9월 18일, 마크롱 대통령은 공공의료 개선에 4년간 총 34억유로를 투자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18년 9월 2호 참고.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2018%EB%85%84-9%EC%9B%94-%EC%A0%9C2%ED%98%B8-%EC%9E%AC%EC%A0%95%EB%8F%99%ED%96%A5/525586

-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DAM)¹⁴)는 프랑스 정부의 의료시스템 개혁 정책으로 인해 2018년도의 2.3%보다 0.2%p 상승한 2.5%로,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수준
- 총 의료보험지출목표는 2,003억유로로, 의료비지원(Soins de ville)과 병원시설이용료지원(Établissements de santé)이 각각 915억유로와 826억유로를 차지함

<표 11> 2019년 프랑스 의료보험지출증가율 목표치(ONDAM)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19년 지출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의료비지원(Soins de ville)	91.5	2.5%
병원시설이용료지원(Établissements de santé)	82.6	2.4%
사회의학 서비스기관(Établissements et services médico-sociaux)	20.8	2.2%
지역출자기금(Fonds d'intervention régionale)	3.5	4.8%
기타지원(Autres prises en charge)	1.9	6.3%
총지출(ONDAM total)	200.3	2.5%

출처: PLFSS 2019

14)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1996년 지출 통제를 위해 제정된 제도로, 차년도 건강보험 지출 최대한도를 의미함